

## 제주해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

- 올해 제주항 한림항(2개소)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, 단계적 대상지역 확대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올해부터 국가 관할 해역(무역항, 연안항 등) 내 수거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.

그간 해류에 의해 유입된 쓰레기가 해역 내 방파제 구역, 해안가 절벽, 먼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.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기상 악화시 다시 떠내려가거나 바닷속 침적쓰레기가 되어 수거 및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.

올해 1분기에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, 방파제 구역의 경우 테트라포드\*의 좁은 틈 사이에 많게는 약 1.7m 높이까지 폐그물·부표·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으나, 작업 공간이 좁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.

\* 테트라포드(Tetrapod, TTP) : 파도로부터 해안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설치하는 사방으로 네 개(tetra)의 발 또는 가지(pod)가 나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

이에,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제주지역 제주항 서방파제,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 2개소\*에 방치된 쓰레기 약 50톤을 일제히 수거·처리할 예정이다. 사업대상 해역은 그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작업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.

\* 제주항 서방파제 : 암반TTP구역 혼재로 작업 안전 등 시범사업에 적합 / 한림항 : 언론 이슈 제기

해양수산부는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별도 안전감리원을 배치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, 수거작업 이후 1년간 쓰레기 재유입·유출량도 조사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방파제 구역을 시작으로, 향후 단계적으로 먼 도서지역 등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환경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성희 (044-200-5300)
	해양보전과	담당자	사무관	서민재 (044-200-5301)

참고

한림항, 제주항 현장 사진



< 제주항 서방파제 구역 >



< 제주 한림항 방파제 구역 >